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열두 번째

두 개의 시험

Jeff Pippenger

2023-11-07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곳에서 첫째 하늘의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대쟁투의 최종적인 시련의 전투에 등장하는 모든 대립자들을 보게 된다. 그 대립자들은 보조 세력으로서 바빌론에서 나오는 큰 무리와 함께하는 십사만 사천이 한쪽, 그리고 유엔, 가톨릭 교회, 미국, 그리고 사탄 자신이 다른 한쪽이다.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전쟁의 양측은 셋째 천사가 아니라 셋째 화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와도 맞서게 된다.

2020년에 공화주의와 개신교의 뿔들이 살해되는 데 기여한 특정한 특징들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는 일요일법령으로부터 미가엘이 일어설 때까지 첫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인류의 전쟁 속에 나타나는 예언적 특징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그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도록 강요당한다. 그 역사는 2001년 9월 11일부터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법령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며, 그 일요일법령이 이 두 개의 평행한 역사를 가르는 경계가 된다. 평행한 역사로서 둘 다 서로의 역사에 대한 증인이 된다. 그중 한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른 역사에서도 벌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두 번째 역사이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첫 번째 역사에 예언적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는 그 두 번째 증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가지 세력은 12장과 13장에서 묘사되어 있다. 먼저 용의 세력이 언급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개의 관이 있더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의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3, 4.

엘렌 화잇 자매는 이 장의 용이 사탄이지만, 이차적 의미로는 이교 로마를 가리킨다고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사탄과 이교 로마 둘 다 유엔을 상징합니다. 그 짐승의 열 뿔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으로 이루어진 사악한 동맹을 나타냅니다. 그 열 왕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제시되며, 거기에서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으로 규정됩니다. 그 짐승은 일곱 면류관을 쓴 일곱 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며, 이는 그것이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임을 나타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그들이 영적 그리스로 묘사되며, 갈멜산의 증언에서는 아합으로, 시편 83편에서는 열 원수들로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언급된 원수의 두 번째 지상 권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화이트 자매는 그것을 가톨릭으로 직접 지목한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는데, 그에게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고, 그 뿔들 위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었으며, 그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또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마치 죽게 된 상처를 입은 것 같았으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고,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놀랍게 여겨 따랐다. 요한계시록 13:1-3.

요한은 1절에서 바닷가에 서 있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으며, 그 후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다. 화이트 자매는 요한이 그 두 짐승을 본 때가 1798년임을 밝히는데, 그 해가 바로 교황권이 '그 힘을 빼앗긴' 해였고, 그로 인해 결국 치유될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교황권이 힘을 빼앗겨 박해를 중지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요한은 용의 음성을 메아리치고 동일한 잔혹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계속해 나갈 새로운 권세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교회와 하나님의 율법에 맞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벌일 이 권세는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표상되어 있다. 그 이전의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왔으나, 이것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는 그것이 상징하는 나라, 곧 미국의 평화로운 등장을 나타낸다. 시대의 징조, 1910년 2월 8일.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볼 때 그는 역사를 뒤돌아보고 있으며, 그 짐승은 교황권을 가리킨다. 역사를 앞을 내다보면서 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는데, 그것은 미국이다.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예언적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이유다. 1798년을 기점으로 뒤돌아보면, 요한은 먼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보는데, 이는 역사 속에서 세 뿔이 뿔혀 큰 말을 하는 교황권의 강대한 뿔에게 자리를 내어 주던 시점을 가리킨다.

그때 나는 다른 모든 것과 달라 지극히 두려운 넷째 짐승의 실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놋이라; 그것이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았으며; 또 그 머리에 있던 열 뿔과, 그 뒤에 돌아나 그 앞에서 셋이 넘어졌던 다른 뿔, 곧 눈이 있고 매우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동류보다 더 위세 있어 보이던 그 뿔에 대하여도 알고자 하였다. 다니엘 7:19, 20.

헤룰리족, 오스트로고트족, 반달족의 그 세 뿔이 제거되기 전에는 이교 로마가 '열 개의 왕관'으로 대표되었다. 그 열 개의 왕관은 이교 로마를 나타낸다. 이어서 요한은 그리스의 표범, 메대-페르시아의 곰, 그리고 바빌론의 사자를 지목한다.

첫째 것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더라. 내가 보다가 그 날개가 뿔혔고,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그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또 보니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았고, 몸의 한쪽을 들어 올렸으며, 그 입의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 개가 있었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어나 많은 살을 먹어라" 하더라. 그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있었는데, 표범과 같았고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네 개 있었으며, 그 짐승은 머리가 넷이었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다니엘 7:4-6.

가톨릭에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으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경 예언에 나오는 이전의 모든 이교 왕국들의 결합을 나타낸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역사적 역순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요한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세 뿔이

제거되었을 때 확립된 권세, 곧 교황권을 보았다. 그다음 그는 열 뿔에 열 왕관이 있는 이교 로마를 보았다. 그다음 그는 표범, 곧 그리스를 보았다. 그다음 그는 곰, 곧 메대-바사를 보았다. 그다음 그는 사자, 곧 바벨론을 보았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묘사는 앞선 각 이교 왕국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묘사는 교황권이 성경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형태의 이교의 복합체임을 입증한다. 가톨릭에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다. 가톨릭에서 기독교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짜다.

갈멜 산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그녀의 배도한 남편과 싸울 때, 이세벨은 사마리아의 집에 있었다. 두로의 음녀는 두 뿔이 달린 땅의 짐승의 역사 동안 잊혀진다. 이세벨은 늘 숨어 있으며,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세상은 그녀를 놀라워하며 뒤따르지만, 그녀는 유엔과 미국, 그리고 사탄이 그러하듯이 하늘에서 경탄의 대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그녀는 사마리아—로마라는 도시—의 지휘 본부에 머물러 있다.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한 짐승의 형상의 시험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땅의 짐승의 역사다. 그 시험은 첫째 하늘의 전쟁 동안에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구절들에서 '그'라는 말을 '미국'으로 대체하겠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더라. 미국은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졌으나 말하기는 용 같이 하더라. 또 미국은 첫째 짐승 앞에서 그 모든 권세를 행하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첫째 짐승에게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더라. 또 미국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은 그 이적들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에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미국]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도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또 미국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또 누구든지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가 아니면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11-17.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교 로마의 용은 교황권을 지상의 보좌에 앉히면서 교황권에게 세 가지를 주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2.

이교 로마를 대표하는 열 왕들(그중 프랑스는 아합으로 대표되는 열 왕 가운데 으뜸되는 왕)이 교황권에 세 가지를 주었다. 곧 권세, "좌", 그리고 권위이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방의 로마 도시에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 330년에 콘스탄티노플을 로마 제국의 새 수도로 삼았을 때, 이교 로마는 로마 교회에 그 "좌"를 내어주었다.

프랑크(프랑스)의 왕 클로비스가 496년에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교황권이 지상의 왕좌에 오르는 것에 저항해 오던 세력들과 맞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교도 로마는 교황권에 그 "권세"를 부여했다.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교회를 모든 교회의 머리이자 또한 이단을 바로잡는 자로 규정하는 칙령을 반포했다. 그때 이교 로마의 권위가 교황권에 부여되었다.

12절에서, "[미국]은 그의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한다." 교황권이 행사했던 그 권세는 자신의 군사적·경제적 힘을 교황권에 바쳤던 클로비스에 의해 대표된다. 그래서 가톨릭은 클로비스를 "가톨릭 교회의 장자"라 부르고, 프랑스를 "가톨릭 교회의 맏딸"이라 부른다. 미국은 496년에 클로비스가 시작한 것과 같은 더러운 일을 교황권을 위해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권세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첫째 짐승을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도록' 사용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가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군사적·경제적 힘을 사용할 것이다. 두로의 음녀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먼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음행하고, 그 후 땅의 다른 모든 왕들과도 나아가 음행할 것이다.

13절에는 "[미국]이 큰 이적을 행하여, 그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 위에 불을 내려오게 한다"고 되어 있다. 불은 거룩하지 않은 메시지를 상징한다. 오순절에 임한 불의 혀들은 그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동반한 거룩한 메시지를 상징했다. [미국]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 불도 또한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절에서, 미국은 "짐승 앞에서 [미국]이 행할 권세를 받은 그 이적들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속인다. 미국이 세상을 속이는 데 사용되는 그 기만은 앞선 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표현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은 미국이, 교회와 국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그 관계를 교회가 통제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라고 세계에 명령하는 데 사용하는 이적들을 만들어 낸다.

이는 엘리야가 세워졌을 때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가 상징한 바였다.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은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첫째 천사의 운동 동안 미합중국의 초기에 성취되었는데, 이는 개신교의 참된 선지자를 개신교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것은 미국의 종말에,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어 곧 시행될 일요일 법령으로 끝나는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시험 동안 다시 성취된다.

엘리야의 완전한 성취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 곧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갈멜 산,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은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유엔의 세계 단일 정부를 지구가 받아들이도록 미국이 강요하는 행위 속에서 상징된다.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자신이 지휘하고 통제하는 부패하고 최면적인 소통 수단을 통해 이 일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월드와이드 웹의 "정보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것으로 대표된다.

15절에서 우리는 "그 [미국]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권세를 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며,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 유엔의 최고 군주를 대표하게 된 미국의 군사력에 의한 죽음의 위협이 유엔의 단일 세계 정부가 말하도록 힘을 부여한다. 그 말하는 행위는

입법과 사법의 권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엔의 입법 부문은 뉴욕에 있고, 사법 부문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헤이그는 구세계를, 뉴욕은 신세계를 대표한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과거에 자유와 해방의 대표적 수호자로 두드러졌지만, 두 나라는 결국 각자의 역사를 용감히 말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기독교 세계 전반에서 안식일이 특별한 쟁점이 됨에 따라, 종교적 권위와 세속 권력이 결탁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게 되면, 대중의 요구에 굴복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소수는 만인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 그리고 마침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을 겨냥한 칙령이 반포되어, 그들을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로 규탄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들을 죽일 자유를 백성에게 부여할 것이다. 구세계의 로마주의와 신세계의 배도한 개신교는 모든 신성한 계명을 존중하는 이들에게 유사한 노선을 취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예언자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묘사한 환난과 고통의 상황들 속으로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대쟁투, 615, 616.

16절과 17절에서, 짐승의 형상이 세워지고 말할 권세를 받은 뒤, "[United States]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

짐승의 형상이 세워지는 것은 짐승의 표의 시험에 앞서 있는 시험이다. 우리가 짐승의 형상이 세워지는 것으로 대표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짐승의 표의 시험에서 실패할 것이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시험이며, 서로 다른 종류의 시험이다.

2001년 9월 11일에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은혜의 시간이 곧 끝나려 한다는 예언적 경고이다. 이는 갈멜 산의 때가 눈앞에 와 있음을 지적하는 엘리야의 기별이며, 최후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품성의 기름과 성령의 기름과 한밤중 외침 기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함을 말해 준다. 그들은 깨어나야 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물을 때 말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때에 말문이 막히는 것은 곧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짐승의 형상 시험은 심판의 종결을 선포하는 기별을 이해하는 일을 의미하며, 이것은 마치 밀러주의자들의 기별이 심판의 개시를 선포했던 것과 같다.

짐승의 표 시험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는 그것에 은혜의 기간이라는 요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기간이 아니라 한 시점이다. 그것은 위기이며, 그러므로 일요일 법령 때 아합에 의해 갈멜 산으로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을 드러낼 시금석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예언적으로 '짐승의 우상 시험'이라고 불리는 이전 기간 동안 그들이 형성해 온 품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살펴 보며 사십 년 동안 나의 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빗나가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진노 중에 맹세하였노니,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악한 불신의 마음이 너희 중 누구에게든지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이르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7-15.